

## KPCA 50주년 총회... 총회장에 김종훈 목사 추대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50회 회년총회가 12일 뉴욕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개막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총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교단의 정체성 회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사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년총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총회 주제는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다. KPCA는 1976년 미주 한인장로교회의 연합속에서 출범했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 발간, 기념 논문집 출판, 회년 집회 등 여러 기념 사업을 준비해 왔다.

개회 첫날 회무에서는 김종훈 목사(뉴욕노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목사는 뉴욕에일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40회 총회장을 한 차례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특히 교단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 위에서 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KPCA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성장과 함께 형성된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장로



KPCA 50주년 회년 총회가 12일 퀸즈한인교회서 개막했다. ©기독일보

교단으로, 지난 50년 동안 북미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한인교회와 선교 현장으로 확장해 왔다.

KPCA는 이번 회년총회를 위해 역사 편찬, 컨퍼런스, 회년 감사예배 및 축하 행사 등으로 나눠 준비를 진행해 왔다. 역사 편찬 분야에서는 교단 50년의 발자취를 정리한 50주년사를 발간했고, 교단 역사를 담은 영상과 자료 전시도 마련했다. 특히 20주년사 이후 교단사의

체계적인 정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50주년사는 지난 반세기 역사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컨퍼런스 분야에서는 오늘의 이민교회와 교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다룬 논문집을 준비했다. 논문집에는 차세대 문제와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세계 선교, AI 시대의 목

회 등 현재 교회가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포함됐다. KPCA는 이번 총회를 교단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회년 감사 행사와 예배도 50주년 의미의 살려 준비됐다. 교단은 오랜 기간 총회에 참여하며 섬겨 온 이들과 선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이들을 기억하는 순서를 마련했고, 음악과 영상, 감사예배를

통해 지난 50년을 돌아봤다. 신임 임원은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노회), 목사부총회장 김신 목사(미서부노회), 장로부총회장 안봉준 장로(수도노회), 서기 고승록 목사(캐서노회), 부서기 강진웅 목사(서노회), 회록서기 허신국 목사(동북노회), 부회록서기 최용성 목사(서중노회), 영문회록서기 Ron Kwon 목사(영어노회), 회계 안병구 장로(중앙노회), 부회계 송동우 장로(뉴저지노회) 등이다.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회년의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회년은 회복과 치유,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KPCA가 50주년을 맞아 교단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출발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년을 맞아 그동안 아쉬웠던 선교와 전도의 열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총회 안에 있는 선교·전도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 노회와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열기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 알립니다

다음주 신문(5/29)은 휴간입니다.

### 건국 250주년 맞아 기독교 보수 진영 집결

5월 17일 워싱턴 D.C. 중심부 내셔널 몰에서 수천 명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재헌정 250(Rededication 250)’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미국 건국 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기도가 열린 내셔널 몰에는 조지 워싱턴 기념비를 배경으로 찬양과 기도, 연설이 이어졌다. 무대에는 대형 십자가와 미국 독립의 주

요 인물들을 형상화한 이미지들이 설치됐고, 행사장 곳곳에는 미국 국가와 신앙적 메시지를 담은 깃발과 문구들이 등장했다.

현장 분위기는 종교 집회와 애국 행사가 결합된 형태로 이어졌다.

#### 트럼프 대통령 성경 낭독

이번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낭독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구절을 낭독하며 회개와 기도를 통한 나라의 회복을 언급했다. 이 구절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라보는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열린 '국가재헌정 250' 행사 ©Christian Post 유튜브 캡처

주 인용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

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행사 관계자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국가적 차원의 영적 회복과 기독교 가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설자들은 미국 역사와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 건국 과정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미국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독교 국가주의’ 논의와도 연결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2면에서 계속

## 종교 자유 vs 기독교 국가주의... ‘재헌정 250’ 둘러싼 논쟁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gmail.com www.btssolar.com



###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 미주한인 교회 2026

# 진단과 미래

진단 없는 실행은, 방향 없는 질주입니다.

**일정**

- > 2026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 > LA 아로마센터 5층 The One Event hall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Session**

- 위기에 선 교회(향후 10년을 좌우할 결정적 흐름들)
- 정체에서 성장의 기대로(교회 문화를 전환할 것인가?)
- 이민교회의 현실과 기회(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사역 전략)
- AI와 교회의 미래(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역 접근법)

**강사소개**

- 샘 라이너 목사 / 처치앤서스 대표
- 웨스트 브래드던 침례교회 담임 목사
- Est.Church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대 회장 김은목 목사  
 info.ckcsca@gmail.com

QR코드 스캔 시  
 사전 등록 신청 페이지 이동

\* 교재비 \$20(현장 납부) / 점심 제공  
 \* 참가 신청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 초여름 활기 속에 열린 '사랑의마당축제' 1,050명 함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16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Emery Elementary School'에서 열렸다.

당일 날씨 또한 초여름의 활기와 신선함이 느껴지는 쾌적한 기온이었다. 장애인들과 가족들, 스텝 및 봉사자들을 비롯해 등록 인원만 1,050명이 넘었다.

1부는 보이스카우트 '278 & 1278 Troops'의 개회 국기 게양식으로 시작되었다.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YNC나성영락교회 이준혁 부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다. YNC HOPE Worship Team 찬양과 한기호 장로의 대표 기도, YNC HOPE PTA의 특송에 이어, YNC나성영락교회 담임인 박은성 목사가 설교했다.

예배 이후 남가주사진작가협회가 단체 기념 사진촬영을 했으며 식사기도는 김장호 국장(Happy Village)가 맡았다. 각 부스에는 점심식사가 푸짐하게 제공되었으며 해빗 버거푸드트럭 2대가 행사장에 운영됐다.

2부 순서에서는 SOW(Seeds of Worship)팀의 열정적인 찬양 연주와 신나는 댄스 파티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토렌스 사랑의교실이 역동적인 난타 공연을 펼쳤고, 남가주밀알 양희원 집사가 위트 있는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해 참가자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 ©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마당축제'와 '사랑의축제'는 남가주 장애 사역 교회 및 단체들의 연합 행사로 각각 매년 5월과 12월에 개최된다.

발달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리로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장애 사역 교회 및 단체들이 각 단체의 사역을 소개하고 정보를 나누며,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는 YNC나성영락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Joyce Ahn 부에나파크 시의원과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KACCOC),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특별 후원으로 진행됐다.

미주복음방송, Caravan Canopy, Hanmi Bank, James Worldwide, Seeds of Worship(SOW),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등 여러 기관의 후원도 이어졌다. 특히 장애 부서가 있는 25개 교회와 15개 장애인 단체, 10여 곳의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행사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꾸렸다. 김민선 기자

## 나성한인교회 “다시 복음으로, 찬양으로 잇는 50년의 여정”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는 지난 5월 16일(토) 오후 5시, 창립 50주년 기념 찬양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여러 찬양팀들과 함께 연합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찬양제는 도미니 헌전 안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되어, 신동철 목사가 환영 인사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 '담대하라'(손경민), '내 영혼이 은총입어'(편곡 한지현), 블레싱 여성 합창단 '요게벳의 노래'(염평안),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진선미), LA남성 선교 합창단 '모든 것이 은혜(제갈 수영)', '주가 인도 하시리라'(Joel Ranny), 크리스틴 헤수 김 'Scherzo No. 3 in C-sharp Minor, Op. 39'(쇼팽 스케르초 3번), OC 한인 마스터 코랄 'Gloria'(모차르트), 모세(K. Medena), 브니엘 여성 합창단, 베아투스 합창단, 황혜경 소프라노, 나성한인교회 연합 찬양대의 공연에 이어 모든 출연자가



LA 남성 선교 합창단(왼쪽), OC 한인 마스터 코랄(오른쪽)은 합창 음악에 뮤지컬 요소를 접목시켜 신선한 무대를 선사했다. © 기독교일보

함께 '거룩한 성'(Stephen Adams)을 마지막 곡으로 불렀다.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1992년 교파를 초월해 장로 25명이 모여 창단됐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나성한인교회 교육관에서 찬양연습을 하고 있다. 매년 1회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블레싱 여성 합창단은 라크라센

타와 라케나다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 Mt. Olive Lutheran Church (브림교회, 주소: 3561 Foothill Blvd, Glendale, CA 91214)에서 하고 있다. 1년에 1회 선교 후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양로원, 병원들을 방문해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혼성합창단인 오렌지카운티 코리안 마스터 코랄은 성가곡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에 뮤지컬 요소를 접목시켜 신선하고 생동감있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은혜한인교회에 모여 연습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내년 10월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의 신앙 유산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 브니엘 여성 합창단은 2011년 창단된 이래 15년 동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베아투스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 → 1면 기사(재현정 250)에 이어서 종교 자유와 기독교 국가주의 둘러싼 논쟁 이어져

이번 워싱턴 종일기도회를 두고 미국 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와 종교계 일부에서는 특정 종교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적 기독교 단체 지도자인 애덤 러셀 테일러 목사는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온 나라라고 강조하며, 특정 형태의 기독교 신앙만을 중심으

로 국가를 다시 헌정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유대교 개혁을 위한 종교행동센터의 요나 도브 페스너 랍비 역시 미국은 초기부터 유대교와 이슬람, 원주민 신앙 등 다양한 종교 전통이 공존해 온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영해 온 미국의 역사 역시 함께 조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행사 참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신앙 회복과 국가적 재헌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강한 햇볕 아래

에서도 찬양과 기도에 함께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이어갔다. 일리노이주에서 행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지금 같은 시대에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국 사회 안팎으로 이어지는 종교·정치 논쟁

이번 행사에서는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그의 활동을 신앙적·정치적 영향력의 사례로 평가하며 미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가치 회

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화상 연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자"며 국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의 신앙을 예로 들며 미국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기독교 성직자는 감독과 유대교 랍비 메일 솔로베이치크가 유일했다. 그는 반유대주의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 자유와 미국 사회의 가치 문제를 함께 이야기했다.

이번 기도회는 백악관이 후원하는 민관 협력 단체 '프리덤 250'이 주최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단체들은 해당 단체의 정치적 성격과 종교적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며 별도의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재단으로부터의 자유(FFRF) 등 관련 단체들은 미국 사회 안에서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눔과 섬김의 교회

# 성전 이전 감사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수많은 기도와 섬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살리며, 사랑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의 빛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일시 : 2026년 5월 31일 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나눔과 섬김의 교회 본당
- 문의 : 213-272-6031

1520 James M Wood Blvd / কমিশন빌্ডিং 1층  
Los Angeles, CA 90015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보내고 잇는 선교 끝나야...끝까지 책임지는 선교로”

제11차 세계한인선교대회 첫 번째 날 주제강의에서 조용중 선교사(KWMC 사무총장)는 한인교회와 한인 선교운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변화된 시대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교운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4시 퀸즈한인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조 선교사는 인공지능(AI)의 도래, 전쟁과 난민 문제, 종교적 박해, 경제적 붕괴, 이념 갈등과 세대 단절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더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더 깊이 분열되고 있고,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더 흐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인으로부터 탈레반 치하에서 두 딸이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기도 요청을 받은 일을 소개하며, “선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책상 위의 전략만도 아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난민의 눈물, 박해받는 교회의 고통, 전쟁터의 아이들, 디지털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다음 세대,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의 운명과 선교는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열방과 교회, 선교운동을 연결해야**  
조 선교사는 이날 강의의 핵심을 ‘링크’(LINK)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그는 첫 번째 핵심인 L을 ‘열방 연결’(Link the Nations)로 설명하며, 열방과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다음 세대, 전문인과 비즈니스 리더,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선교가 더 이상 한 중심에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중심에서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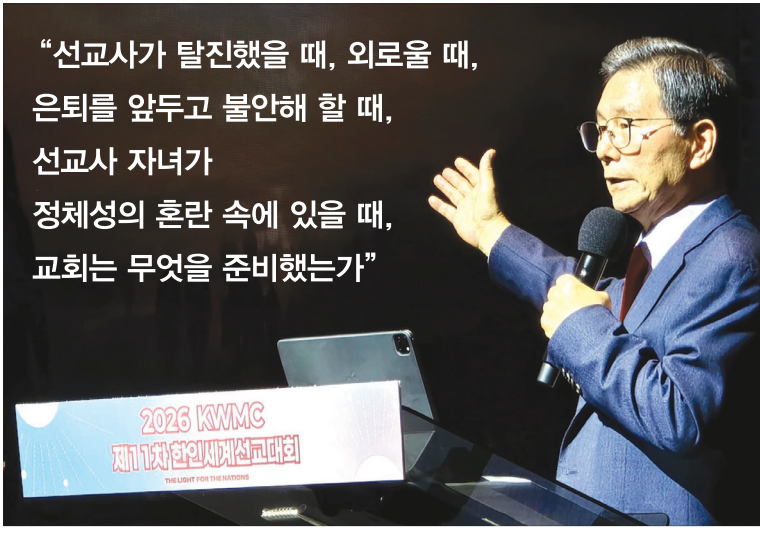
방향으로 흘러가는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교회가 유럽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고, 브라질 교회가 중동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필리핀 성도들이 노동이주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흐름을 준비해 왔다고 평가했다. 1973년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1988년 제3세계선교협의회(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 등은 “선교가 서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선언한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선교사는 “이제 한인교회는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하게 협력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다중심 선교 시대에 한인 선교와 한인 교회의 역할은 주도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 다음 세대와 선교사 자녀 세우기 강조**  
두 번째 핵심인 I는 ‘사람 투자’(Invest in People)다. 조 선교사는 선교의 미래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는 이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의 유산은 끊어진다”며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는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회에서 30~40대 선교사와 차세대 사역자들에게 무대를 대폭 맡긴 점을 언급하며 “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첫날 주제강의를 하고 있다. ©기독일보

이제는 젊은 세대가 선교운동의 주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 자녀(MK)를 향한 실제적 돌봄과 투자도 강조했다. 조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교육과 신분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미주 한인교회가 이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전방 선교는 먼 오지만이 아니다”**  
세 번째 핵심인 N은 ‘새로운 선교 최전방’(Next Frontiers)이다. 조 선교사는 최전방 선교(Frontier Mission)가 단순히 먼 오지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음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전방 선교”라며 지리적 경계뿐 아니라 문화적 경계, 종교적 경계, 세대적 경계, 디지털 경계, 경제적 경계, 예술과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교사가 탈진했을 때, 외로울 때,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 할 때, 선교사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특히 난민 문제를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난민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열방”이라며, 교육과 언어, 정착을 돕고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와 예술·미디어 영역도 새로운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 분별력, 윤리, 진정성”이라며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가보다 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내고 잊어버리는 시대는 끝나야”**  
네 번째 핵심인 K는 ‘파송의 언약 지키기’(Keep the Covenant)다. 조 선교사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데는 열심이 있었지만, 보낸 뒤에는 얼마나 함께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선교사가 외로울 때,

탈진했을 때, 선교사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을 때,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할 때 교회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보내고 잊어버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선교사 돌봄(Member Care)은 선택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선교사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연락, 영적 돌봄, 심리상담, 자녀교육 지원, 위기 관리, 건강검진, 재정 점검 등 조직적이고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선교사에게 ‘우리는 당신을 보냈을 뿐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송에서 은퇴까지, 사역에서 가정까지, 부모에서 자녀까지, 보고서에서 눈물까지, 열매에서 상처까지 함께 책임지는 선교가 앞으로 세계한인선교협의회회의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예수께로, 행동하는 선교로”**  
조 선교사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교회의 희망은 돈이 아니고, 선교의 미래는 기술만이 아니며, 우리의 능력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는 열방의 빛이며 교회의 소망이고 선교의 중심”이라며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교대회가 단순히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선교부가 움직여야 하며, 다음 세대와 전문인, 비즈니스 리더, 예술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 남가주교협,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 ‘미주 한인교회 진단과 미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6월 2일(화) 오전 10시 LA 아로마센터 5층 더 원 이벤트 홀(The One Event Hall)에서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샘 라이너牧사는 처치 앤 앤서스(CHurch Answers) 대표이자 교회 정체와 고령화, 다음세대 연결, 목회 리더십과 교회 생존 전략 분량에서 활동해 왔다. 교회성장 연구 전문가이자 라이프웨이 리서치 전 대표 톰 라이너(Thom S. Rainer) 박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 한인 이민교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진단과 미래’를 주제로, 한인 이민교회의 앞으로의 목회 방향과 사

역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세대 간 단절, 교회의 고령화,

다음세대와의 연결, AI 시대의 목회적 대응 등 이민교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다룬다.

주최 측은 미국 교계 인사를 초청한 배경에 대해, 이미 미국 주류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민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연구해 왔고,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과 통찰이 한인 이민교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강연회가 아니라, 1세와 1.5세, 2세, 신학생들까지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교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익숙한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의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QR 코드나 등록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주 한인교회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리에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

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목회의 방향과 실재를 함께 나눕시다.” (골2:28)

1.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목회 (엡 1~2장, 뱀전2:9)
2. 하나님 뜻을 품고 세워 가는 목회 (마28:19~20)
3. 삼대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 (딤후1:5)
4.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5.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6.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누리는 부족함 없는 목회(시23편)



강사: 김경윤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 날짜 : 2026. 6.18(목) ~ 6.20(토) 2박 3일
- 장소 : The Lighthouse Christian Retreat Center  
313 Canvasback Rd, Big Bear Lake, CA 92315
- 등록마감 : 6월 15일(월)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일보)
- 주최 : 3대 동일신앙 연구소 미주법인, 기독일보

## 건강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주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시128:1~3)

1.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길을 여는 믿음(삼상1~3장)
  2.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엡1~2장, 뱀전2:9)
  3. 말씀으로 세워 가는 성경적 가정교육(신6:4~9, 요13~17장)
  4.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는 믿음의 대화(약1:5)
- 가정의 고민과 신앙교육의 실재를 함께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



강사: 김경윤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 날짜 : 2026. 6.27(토) 오전10:00 ~ 오후 3:00
- 장소 : LA 소망선교교회  
(3511 W. Olympic Blvd, #308 LA, CA 90019)
- 등록마감 : 6월 20일(토)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일보)
- 주최 : LA 소망선교교회



# 베이커스필드 ANC 임직식 “부름받은 시간, 개기일식 처럼 짧다”

안수집사 11명, 명예권사 3명 임직, 공동체 새 출발, J커브 리더십, 예수 중심 동역 강조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는 지난 5월 17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11명과 명예권사 3명을 새롭게 세웠다.

이날 박성호 목사가 인도한 임직예배에서 정창근 장로(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은퇴장로)가 기도하고,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가 “부름을 받은 동역자”(롬 16: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은 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이 편지에 전달하고 있다며 말했다.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이름이 나온다. 16장이야 말로 바울이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선포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기원한다며, 서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당부를 나누었다. 첫째,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 16장에 성별, 신분고하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듯, 그리스도 공동체는 신분, 성별, 계층의 장벽을 넘어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의 리더십 J-Curve**

둘째, 16장의 바울의 동역자들은 “무대 뒤에서 섬김 사람들”이라며,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길 당부했다. 크리스천 리더십과 섬김의 패턴을 ‘J-커브’라고 설명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듯, 오늘 임직 받는 이들 역시 올라가기 위해, 더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낮아지기 위해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는 5월 17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새 일꾼들을 세웠다.

세워진 것임을 강조했다.

세번째,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는 성격이나 취향, 친분, 계급에 따라 동역이 이루어지지만, 크리스천의 동역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동역은 사람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다.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고 갈등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어서,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를 언급하며, 따뜻한 환대로 서로를 맞이하라는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오재현 장로(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시무장로)의 인도로, 노혁주, 노운선 바이올린과 첼로 듀엣 연주, 윤창률 목사(베이커스 필드 ANC 2대 담임) 축사, 크리스 최 목사(ORC 교단 한인사역 디렉터) 권면, 임직자 대표 이현 집사 임직인사, 전승철 성가사(ANC 온누리교회 지휘자)의 축가, 광고, 김태형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윤창률 목사, “하나님 향한 충성,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윤창률 목사는 영화 ‘왕과 사내 남자’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다며, “세상

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심, 그 헌신, 충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억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임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며, “충성하여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고 축사했다.

**크리스 최 목사 “여러분의 부름 받은 시간, 개기일식처럼 빨리 지나간다”**

CRC교단 한인 사역 디렉터 크리스 최 목사는 어머니의 자살로 깊은 슬픔을 겪은 후 사막을 혼자 횡단한 한 호주 여인의 이야기로 메시지를 시작했다.

“호주 여성 로빈 데이비슨(Robin Davidson)은 1977년, 어머니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충격을 겪은 후, 큰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사막을 혼자 횡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개 한 마리와 낙타 네 마리 함께 대륙을 횡단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 나는 교단 사역을 하다 보니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아내와 함께 뒤에 숨어서 교회를 다니며, ‘교단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없는’ 감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주 체험하게 되었다.”

1) 여러분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코 길지 않다

“우리 교단은 아티클(Article) 25조에 따라, CRC 교회, 그레이 로스 앤젤레스 에리어의 클래스스도 교단 헌법에 속해 있다. 교단 헌법 25장을 보면, 여러분의 사역은 항존직이 아니라 유한한 임기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 번 부름을 받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안수를 받으면, 그 임기는 교회가 정한 3년, 4년 등으로 정해지며, 한 번 더 연임을 받더라도 길어봐야 7년, 8년 정도가 여러분의 사역 기간이다.”

“기억해 주십시오. 50대에 부름을 받으면 어떤 교회는 65세가 되면 ‘내려가라’고 말하며, 리타이어 시키기도 한다. 3년, 4년, 5년이라는 임기는, 인생을 돌아보면 개기일식과 비슷하다. 태양이 달에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듯,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훨씬 짧다. 저도 50대 중반, 15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 꿈처럼 스쳐 갔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세상만큼 많지 않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기쁘게 수련회를 하며 사역하다가도,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 시간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용해야 할 은혜이다. 하고 싶은 마음과 열

정이 있어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목사님이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결코 길지 않으며, 그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연학교례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때가 되면 그 턱뼈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불처럼, 바람처럼 열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2) 감사하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직분

두번째로, 직분자 각 개인이 “교회를 감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당회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만장일치 문화, 전체주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단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분명히 나누어 운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교단 중 하나”라며 “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도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장로님과 리더십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듣고 걸러내고 판단하는 것 역시 직분자의 역할이다. 의견을 전혀 내지 않고, ‘팀장이 하라는데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영국성공회, 청교도의 미국 이주 역시 권위와 관행에 대한 순응이 아닌, 비판적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박성호 목사는 임직예배에 참석한 인랜드 ANC, 선랜드 ANC, ANC 기쁨의교회 및 형제교회들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임직예배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 치료부터 일상까지

##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 LIFESTYLE WELLNESS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 · 건강 세미나**

### 문의연락

#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린 사람 아닌 ‘짐승 14마리’ 였다” ... 탈북 여성들의 절규

18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민강제복송반대범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출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의 주최 단체인 ‘탈북민 강제복송반대범국민연합’은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은 송예원 공동대표(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와 김혜윤 대표(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사발실도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체 주민을 국민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탈북민 대표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중국 내 인권 유린과 복송 이후의 참혹한 처벌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송예원 공동대표는 “중국에서 총 14차례나 복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선을 뚫고 대한민국에 왔다”며 “당시 간수들이 탈북민 14명을 이송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14마리’를 수매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감옥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송 대표는 이어 “북한 정권은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생지옥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배불리 먹고 숨 쉬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 감옥과 수감 시설에 갇힌 동포들은 아침이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매질과 고문, 뼈를 깎는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탈북민강제복송반대범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탈북민강제복송반대범국민연합 등 19개 단체 연대 기자회견 개최

송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도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다. 송 대표는 “우리는 한 동족이자 한 핏줄을 이은 사람들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 진짜 내 친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듯,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 땅의 처절한 실체를 마주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하며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스터 여사(탈북민자유연대)는 “비참한 경제난 속에서 가족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농촌 지역 남성들에게 물건처럼 팔려 가고 있다”며 “이들은 노예처럼 감금된 채 폭력과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신분 없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라고

고발했다. 복송 이후 가해지는 고문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도 이어졌다. 이예스터 여사는 강제 복송된 여성들이 보위부 수감 시설에서 겪는 참상을 언급하며, 특히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복송된 여성들에게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자행하거나 주사제로 태아를 죽이는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범죄가 보위부 수감시설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서명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공동대표는 “짓먹이 어린 아이와 강제로 떨어져 복송되는 어머니들의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27kg까지 감소해 시체실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강제 복송 이후 기다리는 결말은 모진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 심지어 공개 처형에 이르는 죽음뿐”이라고 지적했다.

조현태 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우리 공동체의 한 탈북 여성은 20대 초반에 인신매매로 중국 오지에 팔려 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탈출했다”며 “최근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이는 중국에서 겪은 강제 복송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화병이 된 것으로 탈북민 강제 복송은 인간을 사지로 밀어 넣는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역시 법률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국민”이라며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독재정권의 공포 정치 하에 방치하는 죄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예원 공동대표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평화통일 조항)를 인용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할 경우, 중국 땅에서 사선을 해매는 30만 탈북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원의 손길을 송두리째 빼앗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통일부 장관의 전면적인 입장 재고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제임스 워킨

쇼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의원 8명이 시 주석에게 북한 국적자의 강제복송 중단과 제3국 이동을 위한 난민지위 부여를 요청해 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미국의 소리(VOA) 보도를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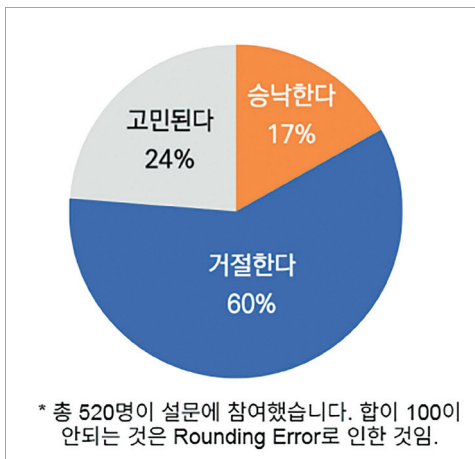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새벽 2시 30분에 직접 공항에 나가 비행기에 올라타며 자국민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봉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중국 내 탈북민 구출을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체들은 우리 동족이 사는 북한이 ‘현대판 노예지주 1위 국가’임을 규탄하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상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형구 기자

##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반려견 장례예배’ 요청을 받는다면



목회자 10명 중 4명 정도는 ‘반려견 장례예배’ 인도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목회자 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반려견 장례예배 인도 요청을 성도로부터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그 결

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거절한다’(60%)고 응답했으나, ‘고민된다’(24%) 혹은 ‘승낙한다’(17%)는 응답도 전체의 41%로 적지 않았다. 목데연은 “반려 가구가 증가

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성도 가정이 늘수록, 향후 한국 교회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문제가

목회자에게 또 하나의 목회적 고민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폴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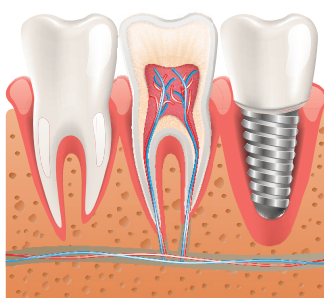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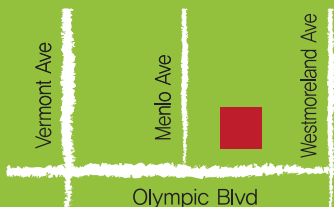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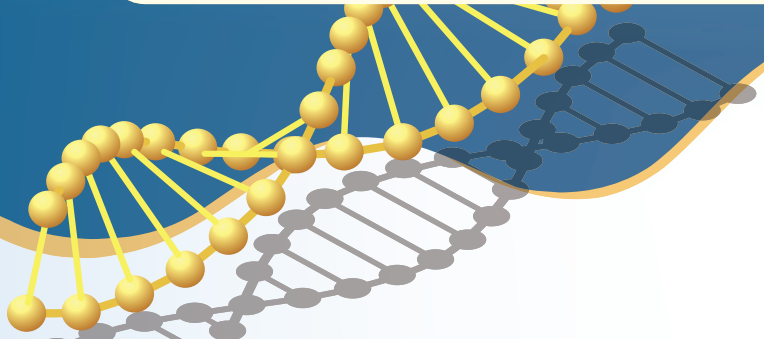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취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뿔뿔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http://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j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30일(토) 오후 2시 / 예약 마감 5월 27일(수), 예약 필수
- 부에나 파크 사무실(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 문의 : 714-732-8477 폴 김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http://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http://www.TeloYouthKorean.com)

##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김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http://www.TeloHealing.com)

# 위르겐 몰트만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 한국신학아카데미 주최... 딸 프리데리크 몰트만 박사 비롯 김명용·이신건 박사 발제

故 위르겐 몰트만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리며 그의 신학과 삶,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신학계에 남긴 영향력이 다시 조명됐다.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 박사)는 8일 오후 서울 안암동 크로스빌딩 한국신학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삶과 신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몰트만의 한국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몰트만 박사의 첫 한국인 제자인 김균진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신학아카데미와, 또 다른 제자들이 활동 중인 온신학아카데미(원장 김명용 박사)가 공동 주최해 국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몰트만의 막내딸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연구원장인 프리데리크 몰트만 박사를 비롯해 몰트만의 제자 9명 가운데 김균진(한국신학아카데미, 연세대 명예교수)·박종화(경동교회 원로)·배경식(한일장신대 명예교수)·유석성(전 서울신대 총장)·김명용(장신대 전 총장)·이신건(전 서울신대 교수)·곽혜원(경기대 초빙교수) 등 7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1부 기념예배는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구홍 박사(전 한신대 총장)가 설교를 맡았다. 이어 유석성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가 축도했다. 회사를 전한 김균진 박사는 몰트만 박사를 "20세기 세계 신학 역사 속 혜성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대표 저서인 「희망의 신학」이 전후 절망 속에 놓여 있던 세계 신학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1964년 출판된 '희망의 신학'은 구약성서의 희망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과 힘을 불러일으켰다"며 "몰트만 박사는 단순한 신학자를 넘어 깊은 신앙심과 인격을 갖춘 존경스러운 분이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몰트만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몰트만이 남긴 사랑의 빛, 한국교회가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사랑의 빛"을 제목으로 설교한



한국신학아카데미가 8일 서울 안암동 세미나실에서 위르겐 몰트만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삶과 신학'을 주제로 진행했다.

연구홍 박사는 고(故)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몰트만 박사에게 진 사랑의 빛을 이제 한국교회가 갚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 박사는 이날 '사랑의 빛'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오늘은 1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몰트만 박사님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그의 사랑에 빛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며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것도 지지 말라고 했다"며 "일반적인 빛은 무거운 짐이지만 사랑의 빛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트만 박사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교회를 깊이 사랑했다"며 "그분이 남긴 사랑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자신을 내어주는 신용 금융과 같은 사랑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며 "몰트만 박사 역시 그 사랑의 빛진 자로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 되갚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연 박사는 "몰트만 박사는 단순히 자신을 추모하지 말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며 "그 기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가 몰트만의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위기의 시대 속에서 몰트만 신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몰트만 박사는 2차 세계대전 포로수용소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인물"이라며 "텍스트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 속 민중의 고난과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 곳곳의 전쟁과 경제적 착취,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고난에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한국적 신학을 발신하는 것이 몰트만에게 진 빛을 갚는 길"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제자 양성을 강조했다. 연 박사는 "훌륭한 스승이라도 제자가 없는 스승은 불행하다"며 "몰트만 박사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와 한국에 수많은 제자를 둔 행복한 신학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몰트만에게서 받은 신학적 유산과 삶을 이어갈 제자들을 사랑하고 키워내야 한다"며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또 다른 길"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그는 나눔과 헌신의 삶을 제시했다. 연 박사는 "몰트만 박사는 자신이 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평생 진실하게 헌신한 사람"이라며 "우리 역시 주님께 받은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고 세계 평화와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도 아름다운 빈손과 가벼운 영혼으로 하나님 나

라에 가서 몰트만 박사와 부활 안에서 기쁜 만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과 부활의 길"이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이날 2부 특별강연에서는 몰트만 박사의 딸인 프리데리크 몰트만 박사(Friederike Moltmann·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연구원장)가 '나의 아버지 몰트만 박사의 삶과 학문'을 주제로 강연했다.

프리데리크 박사는 "여러분은 모두 제 아버지를 신학자로 알고 있지만, 제게 그는 아버지이자 학문적 여정의 롤모델이며 멘토였다"며 "오늘은 네 딸의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상가의 이미지인 한국의 반가사유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몰트만 박사의 엄격한 일상과 학문적 규율을 소개했다. 몰트만 박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과 식사, 산책, 집필을 반복하며 오전과 오후 각각 네 페이지씩 글을 썼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방대한 저작 활동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는 자신의 학문 세계를 가족에게 기꺼이 열어주셨다"며 "딸들과 신학과 지적 주제에 대해 자주 대화했고, 강연과 설교 자리에도 함께 데려갔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제 학회나 여행에도 딸들을 동행시키며 학문과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팬데믹 시기 베네치아에서의 추억을 자세히 소개했다. 프리데리크 박사는 "아버지는 90대가

넘은 나이에도 세 차례나 베네치아를 방문했다"며 "당시 베네치아 총대주교 프란체스코 모랄리아와 우정을 쌓았고, 산 마르코 성당 특별투어와 기념 미사 초청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 엘리자베스 몰트만-벤델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새로운 사유와 저술, 여행과 우정 속에서 삶의 새로움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는 언제나 딸들을 공평하게 대하려 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깊은 관심과 돌봄을 보여주셨다"고 덧붙였다.

프리데리크 박사는 자신과 아버지의 학문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언어학과 철학의 접점에 있는 분석철학과 이론언어학을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조심스러워하셨지만 곧 제 열정을 존중하며 평생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다"고 밝혔다.

강연 말미에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대표적 문장도 소개됐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게 되기 위해서이다."

◆ '희망의 신학' 부터 생명신학까지... 몰트만 신학의 핵심 재조명

이러진 3부 세미나에서는 김균진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김명용 박사(전 장신대 총장)와 이신건 박사(전 서울신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후 김명용 박사(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와 이오갑 박사(강서대 명예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몰트만 신학의 특징들, 그 위대한 공헌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명용 박사는 몰트만 신학의 특징과 세계 신학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며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등 주요 저서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 체계를 분석했다.

김 박사는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기존 자유주의 신학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몰트만은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를 버리고 세상 속 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했다"며 "하나님 나라는 인간 역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감람하는 미래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 제15회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 이단들의 오아시스 미국, SNS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사도운동까지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실체를 진단합니다.



조남민 목사

-세이언 사무총장  
-한인성경선교회장  
-Tyndale 신학교 한국지부교장



한선희 목사

-미이연 회장  
-미주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

- 날짜 : 6월 8일(월) 오전 9:30 - 오후 5:00
- 장소 : 나성제일교회(담임 서종천 목사)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강사 : 조남민 목사, 한선희 목사
- 선착순 50명 (사전 신청 필수, 점심 제공)
- 신청 기간 : 5월 11일 ~ 5월 31일
- 신청 :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forms.fillout.com/t/7RQzeeJT8us>



신청접수

### 주최 :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 스코틀랜드 교회, 팬데믹 이후 개종자 급증... “깊은 영적 갈증 반영”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종자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 배경에 “깊은 영적 갈증”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커크(Kirk)’로도 불리는 스코틀랜드 교회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인원은 8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428명과 비교해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다. 교단 소속 841개 교회 가운데 27%가 지난해 새 신자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발전”으로 평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회복과 갱신의 고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경 참여 증가, 영적 질문에 대한 관심 회복, 교회 출석 증가,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신학위원회의 장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목사는 이번 통계가 교구 내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교단 전체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292건의 신앙 고백이 기록됐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 전반에서 신앙 고백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 깊은 영적 갈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교회에서 나타난 증가세는 관계 중심의 환대, 신실한 예배, 돌봄 사역의 열매”라며 “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정직하게 신앙을 탐구하고 공동체에 의미 있게 소속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자훈련과 세대 통합 사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교회가 외부를 향해

열려 있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교회 삶의 더 깊은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종 증가 현상은 2023년 5월 출간한 스코틀랜드 국교회의 핵심 조직인 FAPLT(Faith Action Leadership Team)의 사역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조직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커크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PLT 보고서는 특히 스코틀랜드 청년층에 대한 사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교단은 젊은층 사이에서 영적 호기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 교인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교인 수는 약 22만9천 명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5% 감소했다. 감소 원인의 상당수는 사망으로 분석됐다.

앞서 2023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2000년 이후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법적으로 설립된 스코틀랜드 교회는 개혁주의·장로교 전통의 교단으로, 영국 국왕을 정치적 수장으로 인정하는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와는 구별된다.

한편 스코틀랜드 교회는 서구권 주요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성과 젠더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 놓여 있다. 교단은 2024년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로 불리는 성적지향 변화 시도 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열린 입장을 보였으나, 해당 법안이 교회와 목회자를 박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추진돼 온 전환치료 금지 입법은 법적 문제와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5년 초 결국 추진이 보류됐다.

최승연 기자

# “표현의 자유 승리” ... 英 거리 설교 목사, 경찰 수사 종결

영국의 한 목회자가 거리 설교 중 이슬람과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자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디아 무들리 목사(58)는 지난해 11월 영국 브리스톨 도심에서 거리 설교를 하던 중 “종교적 증오 선동” 및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른 종교적 가중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유치장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초기 보석 조건에는 브리스톨 도심 출입 금지 조치도 포함됐으나 이후 해제됐다.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에이번·서머셋 경찰은 무들리 목사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들리 목사는 경찰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자신이 겪은 일이 “이중 잣대식 치안의 전형”이라며 기독교적 발언이 범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승리이지만, 공공장소에서 평화롭게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수개월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법률팀과 함께 에이번·서머셋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들리 목사는 “경찰의 검열과 자신이 겪어온 위협 및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전할 것”이라며 “영국 내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의 제러마이아 이구누블레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무들리 목사의 합법적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아 무들리 목사가 시내에서 체포되는 모습. ©ADF

이구누블레 변호사는 “그는 반복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됐으며 기독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는 매번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 승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들리 목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그는 2024년 3월 거리 설교와 관련해서도 체포됐으나, 이후 수사가 종결됐다. 당시 자유수연맹(ADF) 측은 무들리 목사가 주변인들로부터 폭력과 위협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체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변호인단은 지난 4월 4일에도 한 무슬림 행인으로부터 언어적 위협을 받았으며,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무들리 목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발언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구누블레 변호사는 영국 경찰 체계에 “이중 잣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기본권의 합법적 행사와 실제 폭력 범죄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려 하지 않는 이념 편향적 경찰 조직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들리 목사 사건에서 드러난 영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모전은 끝나야 한다”며 “검열적 법률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법안 제정 등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영성경부) 오후 1:30  
백승찬목사 주일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미인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잠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청년부/도미인 10:00 분당

C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 초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현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라인) 5:30am

##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령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청년부 오후 2:30

##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령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5:30(토) 오전 6:00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 하나님을 지우고 당(黨)을 세우다 성경마저 다시 쓰는 중국 공산당의 민낯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사무엘 벤우르의 기고글인 “중국 공산당의 ‘성경 다시 쓰기’: 시진핑 체제 아래 왜곡 논란”(Xi Jinping’s CCP is re-writing the Bible)을 5월 1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사무엘 벤우르는 민주주의 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에서 기독교 박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분석가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사무엘 벤우르. ©Christian Post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기독교 중국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CCP)은 중국 내 기독교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주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공산당은 현재 그들이 ‘중국 기독교 성경’이라 부르는 자체 번역본을 작업하고 있다. 아직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성경’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이미 그 실마리를 목격하고 있다.

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대로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2030년경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비록 공산당 선전 기관들이 마오쩌둥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던 하나, 당 지도부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그 시기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100만 명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다. 여기에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기독교 인구에 강제로 신앙 포기를 강요할 때 벌어진 반발을 고려하면, 오늘날의 공산당은 종교에 대한 ‘무관용 억압 정책’을 펼칠 능력도 의지도 없을 공산이 크다.

중국에서 십계명은 9계명이 되고, 6계명이 되더니, 끝내 그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다. 시진핑이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2018년, 당국은 허난성의 한 관영 교회(국가 공인 교회)에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삭제하도록 강요했다. 기독교를 넘어 아브라함계 종교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단 한 줄의 말씀을 지워버린 것은, 신앙의 심장부를 겨냥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대신 그들은 기독교를 억누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개조하여 공산당을 위한 또 하나의 ‘선전 도구’로 만드는 길을 택했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이 전례 없는 박해를 이해하려면 시진핑의 이러한 최종 목표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해 말, 정부는 홍콩의 한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처음 네 개의 계명과 ‘주님(the Lord)’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고, 나아가 창세기 전체를 통째로 들어냈다. 2019년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은 이 과정을 마무리 지으며 십계명 전체를 아예 시진핑의 어록으로 대체 버렸다. 불과 1년 사이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지엄한 말씀이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신앙이 스며들게 하라”, “당을 따르라”는 붉은 표어로 둔갑한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수시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나이지리아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독교 박해가 끔찍한 유형 사태를 동반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박해 방식은 ‘하나님의 자리에 ‘당’을 앉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공산당이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가장 먼저 지워버리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8장 3~11절 역시 표적으로 삼았다. 본래 성경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용서하신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시진핑의 ‘중국화’ 프로그램이 초래한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중국은 2020년 이래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충성도 테스트, 신학교 커리큘럼 내 시진핑 사상 의무 포함,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전면 금지 등 수많은 억압적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과학기술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재는 그 결말을 끔찍하게 조작했다. 바리새인들이 떠난 후,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 역시 죄인이다. 그러나 흠 없는 자들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직접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제 안면인식 등 최첨단 감시 기술은 중국 전역의 교회 깊숙이 침투하여 설교를 검열하고 기독교인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공산당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이라도 유지하고자 감시 장치 설치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된다. 당국은 수천 개의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내걸었다. 국가 통제를 받는 관제 종교 단체 가입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대규모 표적 급습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경찰은 수백 명의 성도들을 무더기로 수감하고 있다.

이러한 일화들은 ‘기독교 중국화’의 진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시진핑은 자비와 은혜를 억압적인 ‘법 기술(law-fare)’로 짓눌러버리고, 오직 ‘당’만이 유일한 절대 권력을 주입하는 진부한 공산주의 명령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기독교 박해에 맞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미 정부는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과정에 특별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즉, 조작된 성경 텍스트의 실태, 이를 승인한 위원회, 관영 출판사, 그리고 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명단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 조사 결과는 성직자 충성도 테스트, 교회 급습, 성경 왜곡에 가담한 자들을 향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Global Magnitsky sanctions)’와 비자 발급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철저히 무신론을 표방하며, 1949년 국공내전 종식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 기간 내내 모든 종교를 탄압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을 사실상 신격화하는 집단이다. 공산당은 서방과의 연계성, 그리고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1850년대 태평천국 운동 당시 기독교가 했던 역할 등을 이유로 유독 기독교를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시진핑 역시 마음 같아서는 기독교를 전면 금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아니며, 오늘날의 중국 역시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이 아니다.

마오가 집권할 당시 중국 내 기독교인은 약 40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중국이 종교적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면서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시진핑 치하의 기독교인은 최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이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 지하 교회(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를 늦추거나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압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이든, 결국 베이징의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승연 기자

# 美 부모 29%만 자녀와 함께 기도 “관심 있지만 참여 부족”



©pixabay

미국 부모들의 3명 중 1명만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는 지난 15일 '2026 미국 성경 현황(State of the Bible: USA 2026)' 보고서의 두 번째 편인 '성경과 부모 역할(Parenting with the Bible)'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부모들의 영적 습관과 교회 경험을 분석했다. 조사는 올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2,6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장의 데이터는 이 가운데 부모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분석됐다. 전체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모 가운데 자녀와 함께 매일 기도한다고 답한 비율은 16%, 자주 기도한다고 답한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반면 21%는 “가끔” 기도한다고 답했으며, 15%는 “드물게”, 35%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미국성서공회의 최고혁신책임자이자 '성경 현황' 시리즈 편집장인 존 파퀴 플레이크는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은 성경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그 개방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관심이 있지만 깊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모들은 직장과 가정, 돌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레이크는 교회들을 향해 “삶의 부담이 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지원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와 성경 읽기의 건강한 습관을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 훈련도 지속할 수 있다”며 “부모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최소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며, 자신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실천적 기독교인(practicing Christians)’ 부모들의 경우 72%가 자녀와 자주 혹은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비율은 더 낮았다. 부모 중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답

한 비율은 5%, 자주 읽는다고 답한 비율은 9%로, 두 응답을 합쳐도 14%에 그쳤다. 25%는 “가끔”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으며, 46%는 “드물게”, 16%는 “전혀 읽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자녀와 자주 혹은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은 실천적 기독교인 부모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 기독교인은 15%, 명목상 기독교인은 7%로 조사됐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교회 출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5세 자녀를 둔 부모의 72%는 자녀가 교회 예배 참석을 즐긴다고 답했으며, 6~12세 자녀를 둔 부모는 66%, 13~17세 자녀를 둔 부모는 61%가 같은 응답을 했다.

교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천적 기독교인 부모의 9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음주의 개신교 부모는 91%, X세대 부모는 84%, 흑인 개신교 전통 교회 출석 부모는 80%, 어머니는 78%, 일반적 기독교인 부모는 77%였다.

반면 Z세대 부모는 71%, 가톨릭 부모는 69%, 밀레니얼 부모는 68%, 아버지는 68%, 영아 자녀를 둔 부모는 64%, 주류 개신교 부모는 59%, 명목상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 부모는 50%가 교회의 지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가 4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피로와 탈진 예방’과 ‘가정의 재정적 필요 충족’이 각각 27%, ‘자녀에게 지혜로운 조언 제공’이 23%, ‘자녀의 경제 설정’과 ‘훈육’이 각각 19%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것’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부모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기타(3%)’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이었다.

세대별 종교 성향 분석에서는 젊은 부모 세대가 같은 연령대 비부모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997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경우 부모의 62%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반면, 비부모는 44%에 그쳤다. Z세대 비부모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 역시 44%로 동일했다.

이미경 기자

# 美 공립학교, 기독교 방과후 모임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립초등학교가 법적 대응 압박 끝에 기독교 방과후 모임인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 활동을 허용하면서, 미국 내 종교 자유와 공립학교의 평등 접근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최근 헤이워드 통합학군이 파크 초등학교 내 방과후 ‘굿뉴스클럽’ 운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굿뉴스클럽’은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이하 CEF)가 운영하는 어린이 성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여러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갈등은 CEF 측이 지난 4월 파크 초등학교에서 매주 방과후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시설 사용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CEF는 자동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교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관이 불가능하다”며 오후 6시 이후로 시간을 변경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EF 측은 이는 평등 접근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CEF 관계자는 학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민정책법에 따라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방과 직후 활동할 권리가 있다”며 “이미 다른 헤이워드 교육구 학교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EF 측은 “학교가 다른 외부 단체 활동은 허용하면서 기독교 클럽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인 ‘걸스 온 더 런’(Girls on the Run)은 평일 방과 직후 학교 시설 사용이 허용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교육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성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EF 측은 “핵심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비영리 프로그램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신미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이드)미주(미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8: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강문수 담임목사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설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김요영성경부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7: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kb.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중요로운 심 오전 9:30  
화요일 3:30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학생 캠퍼스**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모 집**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교통사고 전문**

배에는 수백계와 명으로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연세 남가주 동문회가 5월 16일 부에나팍 랄프 클라크 공원에 봄소풍을 다녀왔다. © 연세 남가주 동문회

## 연세 남가주 동문회, 61주년 맞이 봄소풍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는 연세 남가주 동문회(회장 권기숙)가 지난 5월 16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랄프 클라크 지역공원(OC Ralph B Clark Park)'에서 1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봄소풍'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의 동문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로, YGCEO AMP 동문회(회장 폴박) 임원진의 참여는 물론 올해 88세를 맞이한 57학번 원로 동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 후배들에

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파릇파릇한 24학번 교환학생들까지 동참해 반세기를 넘나드는 세대와 학번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뤘다.

동문들은 준비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미주 북음방송 한정훈, 권영대 아나운서가 유쾌한 진행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동문들은 다채로운 게임과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권기숙 연세 남가주 동문회장은 "선배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과 후배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어우러져 더욱 뜻깊은 봄소풍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남가주 지역 동문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해 5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세 남가주 동문회 봄소풍에 참여를 원하거나 앞으로의 일정 및 관련 소식을 안내받고자 하는 동문은 박지나 사무총장(1-855-YONSEIN, 966-7346, INFO@YONSEINSCA.ORG)에게 연락하면 된다.

##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위로와 희망의 선을 전하다

OC한인회에서 열린 "OC Community Healing Concert(OC 힐링 콘서트)"가 지난 16일(토)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음악회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흥)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며, 음악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을 비롯한 지역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승재 교수의 지휘 아래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클래식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연주자들을 격려했다.

행사 후에는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학생들의 헌신과 음악을 통한 나눔 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 김영수 단장은 "이번 힐링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CMF선교원 5월 정기모임 및 예배

CMF선교원은 5월 2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과 함께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철민 장로(CMF선교원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영구 선교사(CMF 회원)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이어 엄영민 목사(삼 웨스터민스터신학교 총장)가 말씀을 전했다.

특별순서로 '키 코 아하브(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찬양이 있었으며, 바이블리 엄마반 소개와 함께 여러 어머니들이 돌아가며 간증을 나눴



다. 이날 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도전을 전했다.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INFO**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lplumbing  
@Flplumbing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강준민 칼럼

#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은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겸손의 학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학습하는 사람이며, 끝까지 겸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겸손(謙遜)은 '겸손할 겸(謙)'과 '겸손할 손(遜)'의 합성어입니다. 두 글자 모두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겸(謙)은 '말씀 언(言)'과 '겸할 겸(兼)'의 합성어입니다. 겸(謙) 안에는 '말씀 언(言)'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겸할 겸(兼)'은 함께 품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담아내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또한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품입니다. 겸손(謙遜)의 손(遜)은 '쉬엄 쉬엄 갈 착(乂)'과 '손자 손(孫)'의 합성어입니다. 겸손은 인생의 걸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앞서가려고 합니다. 빨리 인정받고, 빨리 높아지고, 빨리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필요할 때마다 멈출 줄 압니다. 잠시 쉬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긴 여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孫)'의 뜻은 자신보다 앞선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자궁하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길러

준 뿌리를 기억합니다. 자신을 돌보아 준 부모님과 스승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공을 혼자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을 나눌 줄 압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확대도 아닙니다.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겸손은 'humility'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humus)'에서 나왔습니다. 이 '휴무스'는 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흙에서 왔음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기회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겸손이 중요한 까닭은 겸손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성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

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틀릴 수 있는가? 내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겸손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환경을 통해 배웁니다. 겸손은 지혜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반면에 잠언은 겸손을 장려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잠 18:12하). 겸손은 풍성한 복을 받고 키우는 그릇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 겸손을 가꾸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만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겸손의 꽃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도 낮은 마음으로 흐릅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 성령의 역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허드슨 테일러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번개처럼 빛이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56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겪는 가운데서도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1873년 여름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중국에서 행정 사역을 맡아준다면 자신은 더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역

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고, 중국인 협력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반 외국 정서와 반 기독교적인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사역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이때, 허드슨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했습니다. "오,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는 늘 선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채우심", "통로", "받음", "부어주심", "능력의 오심"과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892년 3월, 테일러는 모든 CIM 멤버들에게 중요한 회의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신을 새롭게 성별하여 드린 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끗해진 성전을 차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허드슨 테일러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자는 외침에, 중국 선교회 위원회는 모임을 취소하고, 상하이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자신들과 중국, 그리고 본국의 선교회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합심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은 복잡한 회의와 상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역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곳곳에는 단순히 말씀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

을 가져왔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의 심령에 불을 지폈고, 기이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성화, 지성화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어떤 호기심도 자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프레스 디아스 63기가 시작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 받고, 신앙과 기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은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지루할 뿐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심령에 불을 지피시고, 예배 가운데, 심령이 은혜와 능력으로 흠뻑 젖게 하옵소서 신앙의 냉소와 무관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 12개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내선),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ia.edu



공식 타이틀 후원사

# TOP7 미스트롯4

## 비교 불허! K-트롯의 원조! 시청률 신화의 요정들, 드디어 미국 상륙!!!



### LA Live Concert

## 2026. 8. 22 (토)

2:00PM, 6:30PM(2회 공연) | 월셔이벨극장

특별협찬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Bank**



## 멕시코크루즈 & 선상콘서트

###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얼리버드 이벤트 후 가격은 변경됩니다.

6월 5일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미스트롯4  
공연 티켓 증정  
즉시 구매 가능  
선착순 마감

압도적  
파격가

~~\$899~~  
인사이드 **\$599**

~~\$1079~~  
오션뷰 **\$699**

~~\$1299~~  
발코니 **\$799**

미스트롯4 TOP7과의  
특별한 포토타임으로,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카탈리나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야치 공연 & 민속춤, 프라이빗 선상 공연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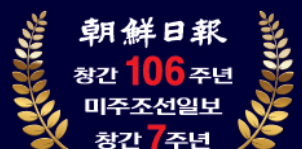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공연티켓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목동칼럼 (16)

# 연휴인가? 성령강림절인가?!!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오월이 되면 미국 사회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분위기로 들뜬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사람들은 긴 연휴를 기다리며 쉬의 계획을 세운다. 물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을 쉬는 일은 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가 교회력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적 계절인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4). 기억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메모리얼데이 역시 기억의 날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 의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메모리얼데이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기억의 영성”을 담고 있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에 한 번 정도 메모리얼데이와 성령강림절이 겹칠 때가 있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이다.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거리로 나가 복음을 선포했고, 하루에 삼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는 건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시작되었다.

감리교회 전통 안에서 이 시기에 기억하는 웨슬리의 회심 또한 그렇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울더스게이트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다. 꺼져 가던 영혼 위에 성령의 불길기 다시 타오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감리교회를 넘어 구세군, 성결교회, 오순절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성령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5월 24일 전후의 주일을 감리교회, 구

세군, 성결교회, 오순절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생일처럼 기억하며 예배드린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 성경에도 그것을 놓쳐 비극을 맞은 사건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삼손의 이야기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적 중심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순간의 욕망을 따라갔고, 결국 들릴라 앞에서 비밀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이 능력이었는데, 그는 가장 소중한 영적 중심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결국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었고, 그 순간 능력도 함께 떠나갔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의 능력과 영적 중심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미국에 와서 고난주간을 속상한 마음으로 보내곤 했다. 많은 학교가 고난주간에 불방학을 배치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깊이 나누어야 할 시기에 가족 여행이나 다른 일들로 분주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여 때로는 “이것이 의도

적으로 영적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물론 모든 여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의 감격을 맞이해야 할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쉽게 묻혀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강림절의 계절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었고, 잃어버린 불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였다. 유월절은 구원을 기억하게 했고, 성금요일은 십자가를 붙들게 했으며,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토록 아름다운 영적 계절 속에서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이 필요하다. 메모리얼데이에 송고한 회생을 기억하듯, 성령강림절에는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웨슬리의 회심처럼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성령강림절과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을 앞두고, 부디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영적 계절 가운데 성령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영적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상명 칼럼

# 말이 먼저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상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주일 오후, 한 청년이 담임목사에게 다가와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좌파’라 부른 일로 청년부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한 청년이 나이 든 성도를 ‘꼰대’이라 치부하자 중년 성도가 조용히 자리를 뒀다.

서로 다른 진영에서 비롯된 두 장면은,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는 거친 언어가 신앙 공동체를 갉아먹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언어의 혼란, 낙인이 된 이념

오늘날 교회에서 빈번히 오용되는 ‘좌파’와 ‘우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의회의 좌석 배치에서 유래한 상대적 위치를 뜻한다. 그러나 이 맥락 의존적인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 체계와 무분별하게 결합하면서, 설명이 아닌 낙인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 정서가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에 여과 없이 유입되면서, 교인들의 단체 채팅방은 정치 토론장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대 탈교인의 27%가 ‘교회 내 편향된 언어와 정치적 갈등’을 교회를 떠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회가 복음의 안식처가 아닌 정치적 동질성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청년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 진리와 사랑을 가리는 세 가지 혼동

신앙의 언어가 이념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혼용되는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좌파’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혼동이다. 좌파적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곧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훼손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자유주의’와 개인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철학적 자유주의’의 혼동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경제 이념의 혼동이

다. 복지 확대나 시장경제 강조는 민주주의 안에서의 정책적 선택일 뿐, 이를 신앙의 척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탄압했던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보수 신앙인들의 우려는 피로 쓴 역사적 교훈이기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경계 힘을 잃지 않으려면 언어가 정확해야 하며, 모든 진보적 견해를 ‘빨갱이’로 묶는 것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될 뿐이다. 반면 진보적 신앙을 지닌 이들 역시 사회적 정의를 말할 때 윗세대를 ‘수구’나 ‘꼰대’로 규정한다면 대화는 닫히고 만다. 선한 의도가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려면 상대를 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마침표 대신 쉼표의 언어로

교회 안의 이념적 낙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며(갈 3:28), 중국에는 신앙의 언어를 밀어낸다. 사도 바울의 권면(엡 4:15)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타인을 단정 짓는 ‘낙인어’를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어’로 바꾸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좌파야”라고 선불

리 규정하는 대신, “복지 정책에 대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구나”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키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여지를 남기는 ‘쉼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대화 중에 한 박자 멈추는 적극적인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이 말이 진실인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지혜롭게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소박한 ‘말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내 말로 먼저 요약해 준 뒤 반응하자는 식의 작은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다. 교회를 떠나려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하기’로 결심하는 작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한마디가 누군가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부르는 문이 될 수 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 글로벌 줄기세포 & 세포 신호 비즈니스 기회

바이오테크의 미래가 도래했습니다

장수 혁명을 선도합니다

생명공학의 진화:

비타민 & 미네랄 → 항산화제 → 줄기세포 치료 → 엑소좀 → 이제: 세포 신호 분자 + 쿼텀 에너지

## TeloYouth와 함께 생명공학의 새로운 시대를 만나보십시오.

텔로유스는 세포 신호 분자와 엑소좀에 담긴 쿼텀 에너지를 활용하여 진정한 재생(rejuvenation)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더 젊어지는 경험을 돕는 세계 최초 역노화 기술로 장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최신 바이오테크 혁신입니다.

## 왜 텔로유스인가?

- ✓ 세계 최초 역노화 기술
- ✓ 차세대 바이오테크 혁신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91% 고객 재구매율
- ✓ 12개 국제 인증
- ✓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6개의 임상 연구
- ✓ 100만 명 이상이 경험한 재생 프로그램
- ✓ 수천 건의 놀라운 체험 사례
- ✓ 리더십 코칭 및 검증된 비즈니스 시스템
- ✓ 무제한 수익 가능 (파트타임 / 풀타임)



##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최근 비즈니스 이벤트에서 66세 이 목사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및 여러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삶의 회복을 경험하신 후 목회를 계속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이 기회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고, 현재도 매월 \$15,000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제 건강, 재정, 가족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었고 더 큰 글로벌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테크 뱀 디렉터

## 다음 비즈니스 기회 설명회

\*영어로 진행

- 한국어 통역 필요시  
본인 이어폰 지참

일시 : 5월 30일(토) 오후 2:00 / 예약 마감 5월 27일(수)

장소 : 부에나 파크 사무실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건강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 제품 소개 세션

매주 토요일 · 오전 9:45(사전 예약 필수)

RSVP 필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com

www.teloyouthkore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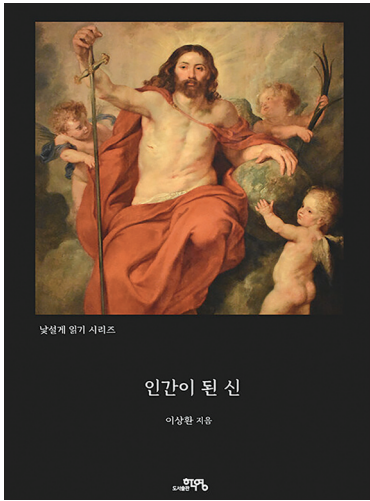


TELOYOUTH

# 텔로유스

[크리스찬북뉴스 서성진 서평] '성육신'의 경이로움, '낮설게 읽기'로

# 황제를 신으로 부르던 로마 제국 속에서, '인간이 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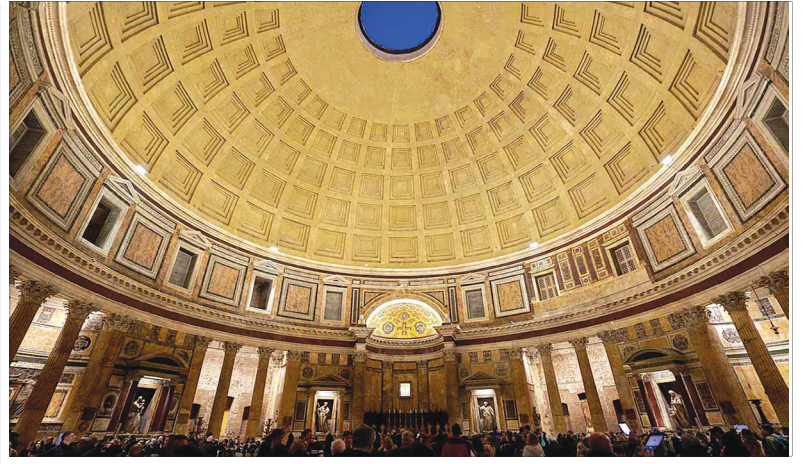


인간이 된 신  
이상환 | 학영 | 248쪽  
16,000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복음의 핵심, 성육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신학적 탐험이다. 이상환 교수는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라는 문화적 배경을 렌즈 삼아, 예수님의 성육신을 '낮설게' 읽는 시도를 펼친다

신들이 인간처럼 보이기만 했던 신화와 달리,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이름조차 평범한 '예수'였다. 이처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복음의 진리를 저자는 감동적이고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이 책은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익숙함을 흔들고, 복음의 경이로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여정이다



▲'만신전'이었던 로마 판테온. ©픽사베이

이상환 교수의 『인간이 된 신』은 성경 해석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저술이다. 저자는 이미 『성경을 읽다』, 『신들과 함께』, 『신들의 신 예수』 등의 저작을 통해 성경과 고대 신화,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긴밀한 관계를 탐구해 왔으며, 이번 저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성육신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역사비평적 해석, 문학적 해석, 사회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상환 교수는 무엇보다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본문이 놓인 문화적·신학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다.

저자는 성경 본문 속에서만 성경을 읽는 자기충족적 독해에 머물지 않고, 성경을 둘러싼 세계와 신화적 상상력,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의 종교적 상징들을 성실하게 불러내며, 그 속에서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를 새롭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학적 독창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성경 메시지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수많은 신들의 신화와 영웅담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와 인간과 교류하는 모티프는 흔히 발견되는 서사적 장치였다.

저자는 이러한 신화적 맥락 속에

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가 어떻게 유일무이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인간을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혹은 잠시 즐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은 단순한 신의 가장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고난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는 성경의 독특성과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학적 상상력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대화하며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의의는 성육신을 단지 교리적 조항으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성경 본문과 고대 세계의 종교적 상징을 교차해 읽음으로써 성육신의 실존적·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려 한다는 점이다.

성육신은 단순히 신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건으로써 이해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저자는 이 사건이 단지 교회안의 신앙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적 상상력과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탐구한다. 즉 성육신은 고대 사람들의 신화적 감수성을 통해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를 통해 오늘날 독자들

은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의 급진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책은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다. 전통 역사비평학은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부터 철저히 구분해 본문 자체의 의미를 밝히려 했다면, 이상환 교수는 오히려 배경과 본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읽는다.

저자는 본문을 중심에 두되, 본문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성경 해석을 지나치게 본문 내적 구조에만 한정시키거나 반대로 본문 외적 배경으로 흘려보내는 양 극단을 피하면서, 성경과 세계 사이의 대화라는 생산적 긴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특정한 언어와 역사 속에서 기록됐으며, 그 언어와 역사 속에는 언제나 상징, 신화, 문화적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가진 풍부한 의미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성경과 신화를 단순히 대립시키는 대신, 성경이 신화를 넘어서면서도 그것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며 주목하게 되는 또 다른 점은 저자의 글쓰기가 단순한 학문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신학적 사유의 깊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는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단지 역사적 비교의 틀 속에 가두지 않고,

그것이 가지는 존재론적 의미와 신앙적 실존성을 드러내려 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단순한 유사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고난, 죽음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급진적 선언이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전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이 책은 몇 가지 비판적 성찰의 지점도 남긴다. 성경과 신화를 연결하는 작업은 언제나 유익하지만, 자칫 성경의 독특성이 희석되거나 신화적 틀 안에 갇힐 위험이 있다. 이상환 교수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성경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신화적 해

석의 강조가 오히려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신학적 담론 안에서 지속적 토론을 필요로 하며, 성경과 신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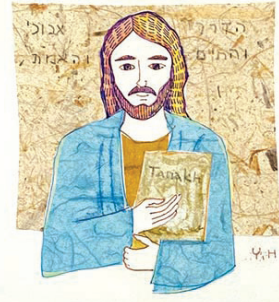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된 신』은 성경 해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이 놓여 있는 역사적·문화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끈다.

서성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마음의 7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1



To humans belong the plans of the heart, but from the Lord comes the proper answer of the tongue.  
PROVERB 16:1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HALOM**  
ACUPUNCTURE

## 샬롬한의원

Diamond Bar 샬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DR. JUNE KIM LAC

-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존 칼빈의 '이코노클래즘(iconoclasm · 성상파괴운동)'

# '하나님의 영광'이 이상숭배로 모욕당했을 때?

칼빈, 성상 숭배 강력 비판에도 '이미지는 가치 없다' 여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묘사해 교회 미술 남용 부정적이었을 뿐 보이는 세계 하나님 계시로 인식

존 칼빈은 성상 숭배 문제를 『기독교강요(1536)』 초판에서 심계명을 논의하면서 다뤘다. 이 책에서 그는 불가해하고 보이지 않거나 어는 장소에도 간할 수 없는 분을 가시화하고 '참되신 주'로 착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 후 발간된 『기독교강요(1559)』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성상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했다. 특히 1권 11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감각적 지각에 복종시키거나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칼빈의 교회미술론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의 신학과 연관돼 있다. 하나님의 신성은 전능과 영광 속에서 빛나며,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피조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신성을 무로 돌려보내게 된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감광해 나무, 돌, 금, 은, 그밖의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신을 형상화하려는 욕망으로 오히려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이것이 칼빈이 예배당에서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비판한 근본 이유가 된다. 검소한 교회 건물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벽에 너무 몰두해서 건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다(Sergiusz Michalski, The Reformation and the Visual Arts, Routledge, 1993, 69쪽)"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회 내 성상, 성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V

세(Constantine V)가 소집했던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 아니라 형상물에 예배를 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스의 성상, 성모 마리아, 천사, 그리고 성인들에게 촛불, 향, 절하기를 통한 존경이 허용된 것이다.

또 니케아 회의에서는 비잔틴에서의 성상 옹호와 함께 마리아의 공식 명칭을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의 '테오토코스(Theothokos)'로 정해 마리아 숭배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찬성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칼빈은 이 시기 젊은 궁정 신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반박서 『카롤링어의 책(Libri Carolini)』에서 이미 니케아 회의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 책에서 성상을 옹호한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의 주장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형상물들을 관조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테오도루스(Theodorus)의 주장을 각각 반박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이미지를 교회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성직의 순수성이 쇠퇴해 감에 따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 형상물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미술을 권고한 그레고리우스의 주장이다. 그레고리우스는 문맹자에게 성화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성화를 '문맹자의 책(book for the unlearned)'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칼빈은 그레고리우스가 '성령의 학교'에서 배웠더라면 결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렘 10:8)"고,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합 2:18)"고 하였다. 선지자들의 판단에서 보듯이 "인간이 우상에게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익하고 거짓된 것이다

『기독교강요』, 1권, 11. 7.)"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인용해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점, 엘비라 교회 회의(the Council of Elvira)에서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선 안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 받아야 할 것이 벽에 그려져서도 안 된다"고 했던 사실을 소환했다.

16세기에는 유럽 사회에 성상과 성화의 폐해가 만연해 있었다. 행복한 결혼과 출산, 건강, 치유를 기원하는 '이미지 기적(image miracle)' 현상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지 기적'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막으려 평일에는 교회 문을 잠그고까지 할 정도였다. 개혁가는 이같은 행위를 '종교적 열심'으로 부르지 않고, '타락한 제의', '미신'으로 간주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지와 이상숭배로 폄하되고 모욕을 당한다는 생각은 1530년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논문 '어떤 종류의 이미지도 허용되지 않는다'에서도 발견된다. 칼빈이 말한 '조월성'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제도와 형태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계시지 않고 모든 하늘 위에 계신다(Sergiusz Michalski, The Reformation and the Visual Arts, 64 쪽)." 신의 실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적합한 지식에 다다를 수도, 각자의 욕망대로 신에 대한 환상을 형상화하도록 유혹받게 된다.

칼빈은 '보는 감각(sense of sight)'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해의 방식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설교된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기독교강요』, 3권, 2. 7) 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위엄을 시각적 방식으로가 아닌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리옹에서는 성상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짓밟는 성상파괴 운동(1562. 5. 13)이 발생했다. 리옹 성상파괴 운동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기증 공작의 추종자들이 바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최초로 풍경화가 탄생했다. 당대 대표적 풍경화가인 야곱 반 루이스달, '직물을 말리는 들판의 하렘풍경(1670)', 캔버스에 유채, 62.2x55.2cm.

(Vassy)에서 예배 중이던 위그노들을 공격, 수십 명을 학살한 사건(Massacre of Vassy)에 대해 위그노의 군사적·종교적 대응 성격이 지닌 사건이었다. 분노한 위그노들은 도시 내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성상을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을 벌였다.

칼빈은 성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성상 파괴 행위는 합법적인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성상 파괴를 정당한 치안판사나 시의회와 같은 합법적 권위가 명령할 때만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미지가 악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가르침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개혁주의 미학 연구가 윌리엄 더니스(William Dryness)가 말했듯, 더 높은 지식의 길이 설교를 통해 전해진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지가 이러한 지식을 뒷받침하거나 실제로 풍부하게 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칼빈 자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묘사했다.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서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기독교강요』, 1권, 14. 20)." "우주에는 그분의 영광의 불꽃을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광활한 우주의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를 한눈에 조망할 때 그 무한한 밝기의 힘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기독교강요』, 1권, 10. 1)".

교회 미술의 남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하는 것에는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서성록 명예교수



▲이미지와 성상의 교회 내 설치를 반대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석상이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에 위치해 있다. (왼쪽부터) 윌리엄 파렐, 존 칼빈, 테오도르 베자, 존 녹스. ©윌키

## ADU 전문

###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http://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http://www.en.kurbanlike.com)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 언더우드 선교사 4대손, 해외한인장로회 50년 축복

한국 장로교 선교의 문을 연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심긴 복음이, 이제 해외한인장로회(KPCA)를 통해 미국과 세계로 다시 확장되고 있다는 언더우드 선교사 후손의 증거가 KPCA 제50회 회년총회 현장에서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50회 회년총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13일 오후 7시 30분 회년감사예배에서는 존 포스터 언더우드(John Foster Underwood)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손으로, 이날 축사에서 자신의 증조부를 통해 시작된 한국 선교의 여정을 언급하며 KPCA가 지난 50년 동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국을 넘어 미국과 세계로 확장해 왔다고 축복했다.

언더우드 목사는 이번 축사를 위해 플로리다에서 기차로 워싱턴 DC까지 차량을 싣고 이동한 뒤, 뉴욕까지 운전해서 오는 긴 여정을 거쳤다.

언더우드 목사는 먼저 KPCA의 50년을 축하하며 “해외한인장로회의 50년 동안의 선하고 신실한 섬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976년 소수의 교회로 시작한 해외한인장로회는 오늘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손인 존 포스터 언더우드 목사가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50회 총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 “한국에 심긴 복음, KPCA 통해 세계로 전진하고 있다”

수백 개 교회로 성장했다”며 “미국 안의 한인 장로교회로 뿌리내린 교회가 이제 해외한인장로회로 꽃피웠다”고 평가했다. 또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겸손한 시작에서 출발한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사역의 발판을 세웠다”며 “그것은 진정 축하할 만한 일이고, 자랑스럽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증조부, 조부, 아버지의 형제들, 사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

는 일에 삶을 바쳤다”며 “그들은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러분은 지난 50년 동안 그 같은 사명을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며 “그 여정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게 수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언더우드 목사는 KPCA의 50년을 단순히 과거의 성취로만 기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축하는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이 이룬 일을 향한 것”이라며 “그러나 더 큰 축화와 찬사는 아직 앞에 놓인 일을 향

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회년의 의미를 되짚었다. 언더우드 목사는 레위기 25장 11절의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회년은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알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회년은 축하의 해일 뿐 아니라 안식의 해이기도 하다”며 “그렇다면 이 50년째 되는 해가 과연 여러분에게 쉬는 해인가”라고 물었다.

언더우드 목사는 KPCA 앞에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의 발에는 아직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며 “앞으로 거두어야 할 추수의 계절이 남아 있고, 곡간으로 들어야 할 수확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분명 축하해야 할 해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 해”라면서도 “만일 회년이 침만을 의미한다면, KPCA의 50주년은 그런 의미의 회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언더우드 목사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곧 사명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언더우드 목사는 “주인이 아직

결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달란트는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뜻”이라며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이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모두 끝난 것처럼 축하할 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언더우드 목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길을 떠난 지 약 50년 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태어난 땅을 떠났을 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며 “50년 동안 그들은 여정의 중간 기착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부르심의 갱신이었다”고 해석했다. 또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시며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 [지난호 기사 '북한자유주간 정책 포럼'에 이어서 계속]

조셉 전 차관은 자신이 과거 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미국 정책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 뒤로 미뤘던 점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비핵화와 핵 프로그램 축소에 집중하느라 인권 문제를 협상장 밖에 세워둔 것과 같았으며, 인권을 나중에 다루자는 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이 같은 체제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정권 유지의 방식이며, 그 정권 유지 구조가 핵·미사일 개발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해법 역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설계될 수 없다는 것이 조셉 전 차관의 설명이다.

조셉 전 차관은 통일을 향한 사전

준비도 강조했다. 급변사태, 대량살상 무기 관리, 인도주의 대응, 통일 이후 재건과 투자 체계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통일을 이상적 구호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제도,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에 강한 회의론을 보였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제재 완화와 자원 제공, 국제적 정당성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 정권이 함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어렵고, 검증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런 협상은 북한의 핵 태세를 계속 강화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인택 의장 “두 국가론 거부하고 하나의 통일국가 요구해야”

이어 특별 발표에 나선 서인택 통일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 의장은 이날 포럼의 ‘원코리아’ 메

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의 대북정책이 제재와 협상을 오가는 순환에 머물렀고, 북한 정권은 그 사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체제 생존의 보장 장치라며, 분단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핵 포기를 설득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병의 증상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치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분단과 자유의 부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의 비전으로 ‘코리아 드림’을 제시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바탕으로 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었듯, 한국에는 흥익인간 정신에 뿌리를 둔 ‘코리아 드림’이 있다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이 비전이 이념과 정파를 넘어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 목표로 묶고, 북한 주민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형제자매

로 바라보게 하는 통일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북한이 통일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운 상황을 중대한 도전으로 봤다. 그는 어떤 형태의 두 국가론도 거부하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는 이날 포럼 전체를 관통한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분단을 영구화하고 북한 주민을 자유와 인권 밖에 남겨두는 반통일 노선이며, 이에 맞서는 해법은 ‘원코리아, 원패밀리’의 비전이라는 것이다.

서 의장은 통일은 정부 간 협상만으로 이룰 수 없고,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가 통일운동의 주체가 돼야 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

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정권의 통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분노나 체제 붕괴론만으로는 변화 이후의 혼란을 막을 수 없으며, 변화 이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통합된 비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의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대북 방송과 정보 유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간 차원의 기금 조성과 기술 활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첫째, 통일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 둘째, 현상 유지 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는 전략 틀로 전환할 것. 셋째, 한국인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과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기술 협력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이제 엘에이까지 오렌지카운티까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에이, 라팔마, 프레스노에 이어  
**이제 샌디에고에서도**  
미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재정 전문가팀을 만나보세요.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앞으로 30년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은퇴 플랜, 상속, 생명보험, 어뉴이티, 절세플랜 IRA,  
401K 롤오버, 학자금플랜, 리빙베네핏, 롱텀플랜  
이 모든 것은 문선영의 머니토크 샌디에고팀과 함께 하십시오.



### 샌디에고 오피스 GRAND OPENING

**2026년 5월 30일  
(토) 오전 11시**

7825 Engineer Rd Ste 201  
San Diego, CA 92111  
(샌디에고 우리 성모병원 2층)

참가문의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교회및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및 견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 213-500-8000

✉ [btssolardesign@gmail.com](mailto:btssolardesign@gmail.com) 🌐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 맞춤형 설계 & 시공
-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